

#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 '깜깜이 선출' 여전

### 상당수 학교 사전 안내·공고 등 절차 없이 알뜰알뜰 뽑아 시험지 유출 사고 겪고도 그대로... 시민모임, 개선 촉구

광주 상당수 학교가 학교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 선출위원회 구성·입후보자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운위원 선출 사전 안내도 부실해 입후보 등 선거 참여도가 낮아, 학교와 친분이 있는 인사 위주로 무투표 당선 또는 사전 내정 형식으로 뽑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학운위원장에 정기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넘겼다가 광주 교단을 발칵 뒤집었던 광주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학운위원 선정과 학운위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광주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 선출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학운

위원 선출 관련 절차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200개교 이상), 학부모단체 설문(참교육학부모회 200명 가량), 시민 제보(10명 이내) 등을 토대로 사전 내정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이 문제 삼은 대목은 ▲학운위원 선출 사전 홍보 미흡 ▲선출위원회 형식적 구성 ▲교원위원·지역위원 구성 편향성 ▲(홍보 저조 등의 이유로) 학부모 참여 저조, 그에 따른 무투표 당선 및 사전 내정 형태 등이다.

광주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교원 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실제

로는 해당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꾸리고 행정실장이 운영위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있는 실정이다.

무투표 당선 및 사전 내정 발표 사례도 시민 제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났다. 상당수 학교가 전체회의 없이 후보자수와 선출위원(학운위원) 수가 같다는 이유로 무투표 당선시켰다. 광주 A 초등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느닷없이 학운위원을 내정한 경우도 있었다. 교원위원은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감이나 부장교사가, 지역위원은 퇴직 교감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학교장 고유 권한이 침해되거나, 반대로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건전한 비판과 토론 문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 후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 운영지원비 사용, 학교급식 등에 관한 심의권한이 있다.

학운위 심의 대상에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도 포함된다. 사실상 학교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며 견제하고 때론 학교 방침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주요 기구이지만, 학부모·교원·지역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운위원 구성이 영타리로 되다 보니 투명하고 바람직한 학교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시민모임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 초중고교 학운위원 선거가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운위 선거 전수조사를 거쳐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표시** 17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 소화전 경계선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인원들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전국 5·18 담당 교사 500명 광주 연수 시작

### 인천 교원 70명 오늘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치는 대구·경북 등 전국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가 시작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인천 교원 70여명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9개 지역 교원 500명을 초청해 5·18 민주화운동 교육 직무연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올바른 역사 인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5·18 전국화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연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차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말과 글을 넘어 역사적 현장에서 다양한 경로의

체험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5·18 유가족과 교사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오월극 전문 극단 토박이 공연도 관람한다.

광주 교사가 진행하는 5·18 사적지 안내, 특강, 수업사례 발표도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오경미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들이 먼저 5·18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고 5·18의 전국화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외국인학교 교직원 채용 마약류 검사 권고

### 로버트 할리 체포 이후 광주시교육청 현장 지도점검

광주시교육청이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외국인학교에 교직원 채용시 마약류 검사와 성범죄 경력 조사를 권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하씨 체포 이후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학교 측에 이 같이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한 1~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시 교원 동의를 얻어 마약류 검사를 하는 방안과 함께 7일 이내 알려야 하는 교원 임명 보고 규정을 엄격히 지키라고 권고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시교육청은 다만 입학 부적격자 유무, 내국인 입학 비율, 교원 임명, 정보공시, 시설 등 학교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의 잇단 마약 범죄에도 마약류 검사 '권고'에 그친 것은 외국인학교가 외국인 투자자·연수자 등을 유치하려고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되다 보니, 자율성만 한 것 강조되고 관할청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8 달뜨기 17:46  
해질 19:07 달질 05:23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봄날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1/23	보성	맑음	5/22
목포	맑음	10/20	순천	맑음	8/24
여수	맑음	12/20	영광	맑음	8/20
나주	맑음	6/22	진도	맑음	8/21
완도	맑음	11/21	전주	구름맑음	11/23
구례	맑음	5/25	군산	구름맑음	9/19
강진	맑음	7/22	남원	맑음	7/23
해남	맑음	6/22	흑산도	맑음	10/18
장성	맑음	7/22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서부	남~남서	0.5~1.5	남서~서	0.5~1.5	
	남~남서	1.0~1.5	남서~서	1.0~1.5	

◇생활지수

보통	뇌출중	보통	보통
감기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28	01:06
	18:54	13:33
여수	02:05	08:25
	14:26	20:49

◇주간 날씨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	☀	☁	☀	☀	☀	☀
12/22	11/23	12/22	13/21	11/22	11/23	11/22

## 목포해경, 영업시간 위반 낚시배 2척 조사

목포해경은 영업시간을 위반해 낚시배를 운항한 A호(1.85t, 승선원 3명) 선장 박모(64)씨와 B호(3.53t, 승선원 10명) 선장 김모(42)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불법조사 중 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낚시 포인트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한 낚시배 영업시간(새벽 3시~반 10시)을 벗어난 시간에 무안군 망운면 탄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영업을 한 혐

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 자동입출항신고장치(V-PASS) 시스템 모니터링 중 영업시간을 위반해 출항하는 A호와 B호를 적발했다.

자치단체장은 안전과 사고 방지, 질서 유지를 위해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 식약처, 사용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글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CMIT/MIT가 검출된 제품(제조일자)은 뿌리엘린이 수입한 '에티듀드 무향 13189' (2018년10월12일·2019년2월4일

'2019년2월5일), '에티듀드 무향 13179' (2019년1월10일)과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한 '엔지폼 PRO' (2019년2월20일), 에이비인터내셔널이 수입한 '스칸덴 세척제' (2019년2월14일) 등이다. 에티듀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선착순**

**엘림형 태양발전소 분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